

월요광장



윤 희 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얼마전 남부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광주에 예기치 못한 물난리를 불러왔다. 몇 년간 비교적 조용했던 지역에서 도심 곳곳이 순식간에 침수되며 시민들은 큰 불편과 불안을 겪었다. 특히 북구청 앞과 신안교 삼거리 같은 상습 침수 구역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물에 잠겼고 광주천은 범람 직전까지 위태로웠다.

사태의 원인은 분명하다. 비가 지면에 닿자마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도시 위를 흘러내렸고 흡수될 공간이 사라진 도심은 순식간에 물길을 잃었다. 불투수성 구조물로 가득한 도시에서는 아무리 정교한 배수 시스템도 단시간의 폭우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해답은 자연에 있다. 도시를 자연의 순리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비가 떨어졌을 때 땅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도시 전역의 구조를 바꾸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 공원이 빗물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집집마다 빗물 침투통이나 빗물정원 같은 친환경 시설을 널리 설치하는 방식도 효

수필의 향기



이 중 섭
소설가

요즘 여름 불볕더위로 힘들다. 이제 칠팔월이면 당연하다는 듯 열대야가 빈번하다. 앞으로 여름은 더 더울 거로 예상한다. 문명의 혜택으로 풍족하지만 왠지 옛날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갈수록 여름이 무섭다. 자주 어린 시절에 천동벌거숭이로 뒤흔던 고향 물가가 그림다. 늘 고향 쪽 하늘을 보며 갈맷빛 산과 들을 마음속에 그려본다. 추억 속에서 나는 언제나 소년이 된다.

고향 별판을 흐르는 송내는 천등산에서 발원되었다. 여러 마을과 들판을 흘러내리다가 고흥만에서 바다와 만났다. 냇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회귀성 물고기들이 많이 살았다. 싱싱한 살집을 가졌던 어린 송어 새끼인 모치, 여름이 가까워지면 바다에서 송내로 은어 떼가 올라왔다. 아이들은 은어를 잡으려 고춧대를 뜯어서 냇가 사방에다 흩뿌려놓고 자근자근 밝아했다. 아이들은 팔딱이는 은어를 바구니에 주워 담으며 여름날을 보냈다.

은어. 산삼이 있는 산 아래 청정한 개울에서만 산다는 신성한 물고기. 송내를 따라 한참을 오르면 우뚝하게 서 있는 천등산. 아이들은 거기 산삼이 있을 거라고

물에 잠기는 도시에서 물을 품는 도시로

과적이다.

이러한 해법은 거창한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동구, 남구, 북구 지역에는 가성마다 규격화된 빗물 침투통 설치를 유도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일본 도쿄도의 지자체들처럼 실질적인 홍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광주는 이미 ‘물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해 물의 순환을 고려한 도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실질적 실행은 부족하다. 한때 상무지구에서 물순환 특화 사업을 시행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의 노력은 뚜렷하지 않다.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우수관 점검’은 임시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대응이 되지 못한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도시 건설과 토목 방식 자체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광주는 여전히 과거의 도시 개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물을 배제하고 지형을 무시한 채 표면을 덮는 설계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이번 집중호우에 광주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침수의 근본 원인을 더 들여다보면 그 문제가 더욱 분명해진다. 이번에 침수된 북구청 앞과 신안교 삼거리 아래에는 각각 서방천과 용봉천이라는 소하천이 복개되어 있다. 본래 하천이 흐르던 자리에 도로와 건물이 들어서며 물길은 좁은 지하 관로에 갇히게 되었고 집중호우에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여름나기

철석같이 만었다. 매일 멀리 솟은 갈맷빛 산 위 파란 하늘을 보며 소년은 무언지 모를 동그런 그리움을 키우며 살았다.

은어가 냇가로 쏟아져 들어오고 어느 때는 전어가 파닥거리며 물살을 헤치고 다녔다. 물고기도 많았고 먹이를 만한 풀들도 지천으로 깔렸는데, 그 시절 송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뉘엿뉘 길은 멀고 소년은 늘 배가 고팠다. 몇 번을 쉬었다가 다시 걷기를 반복했다.

유월 햇벌이 뜨거워지면서 산과 들에는 녹음으로 가득했다. 송내에서 헤엄치던 아이들은 점점 얕은 물가에 실증이 났다. 더 깊고 위험한 물놀이터를 찾았다. 그 중의 하나가 논 가에 있는 둠벙이다. 갈수기에 이 둠벙에 저장해 놓았던 물을 버는 날에 댔다. 시골 아이들은 둠벙에서 헤엄을 자주 했다. 또래들보다 성숙했던 소년은 한두 해 형들보다 수영을 잘했다. 키를 훨씬 넘는 깊은 둠벙에서도 마치 얕은 곳처럼 똑바로 선 채 두 손을 얼굴 앞에 세우고 발헤엄을 쳤다.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몰속으로 끌어들었다. 겁많은 아이들이 몰속에서 허우적거리면 끌어올려 주곤 했다.

소년이 3학년 방학 때였다. 날씨가 엄청 더웠다. 수영을 잘하는 몇몇 형들의 지원 아래 저수지를 건너는 도전에 나섰다. 우리는 산 밑에 자리 잡은 저수지에 도달했다. 저수지 둑은 길고 풀빛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건너편 저수지 끝을 바라보았다. 저수지 물은 어서 오라는 듯 반짝거렸다. 아이들은 아자, 아자! 하며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도전 의지를 부추겼다. 소년은 저수지의 깊은 물 속은 가능한 한 상상하지 않으려 했다. 6학년 형들도 한두 명 제외하곤 아직 저수지를 건너지

않는다. 멀리 천등산은 겹대거리 상실한 꼬맹이를 내려다보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처음에는 평영인 개구리헤엄을 치며 물살을 갈랐다. 한참을 헤엄쳐 가다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건너편은 아직 한참이나 멀리 있었다. 갑자기 몸에서 힘이 쭉 빠져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살갗에 닿는 물의 감촉도 차가워졌다. 아, 앞으로도 뒤로도 돌아갈 수 없이 까마득한데 다리마저 뻗뻗해졌다.

소년은 얼른 몸을 뒤집었다. 배영인 송장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시골 아이들은 송장벌레(소금쟁이)가 뒤집어서 헤엄치기에 그렇게 불렀다. 눈앞에 시퍼런 물이 보이지 않자 일단 무서움이 달랐다. 대신 뜨거운 햇살이 얼굴에 내리쬘었다. 등짝 아래는 시커먼 무언가 나타나 아래로 곧 잡아당길 것 같고 끝은 언제 닿을 지도 모르는 서늘한 저수지 한가운데 누워서 바라보는 하늘은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푸르렀고, 하얀 문게구름은 너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도시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자립적인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빗물이 스며드는 도시’,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도시’로의 변화야말로 광주가 기후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답이다. 물을 밀어내는 도시가 아니라 물을 품을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지금 광주가 가야 할 길이다.

못했다. 멀리 천등산은 겹대거리 상실한 꼬맹이를 내려다보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처음에는 평영인 개구리헤엄을 치며 물살을 갈랐다. 한참을 헤엄쳐 가다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건너편은 아직 한참이나 멀리 있었다. 갑자기 몸에서 힘이 쭉 빠져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살갗에 닿는 물의 감촉도 차가워졌다. 아, 앞으로도 뒤로도 돌아갈 수 없이 까마득한데 다리마저 뻗뻗해졌다.

소년은 얼른 몸을 뒤집었다. 배영인 송장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시골 아이들은 송장벌레(소금쟁이)가 뒤집어서 헤엄치기에 그렇게 불렀다. 눈앞에 시퍼런 물이 보이지 않자 일단 무서움이 달랐다. 대신 뜨거운 햇살이 얼굴에 내리쬘었다. 등짝 아래는 시커먼 무언가 나타나 아래로 곧 잡아당길 것 같고 끝은 언제 닿을 지도 모르는 서늘한 저수지 한가운데 누워서 바라보는 하늘은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푸르렀고, 하얀 문게구름은 너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저수지를 건너자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 후로 한동안 소년은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또 금방 잊었다. 여름 동안 아이들은 발에 심어진 옥수수처럼 무럭무럭 자랐다.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저수지를 건너는 꿈을 꾸곤 한다. 어김없이 몰속에서 쑥, 올라온 검은 손에 목덜미를 잡힌다. 쇠갑고 썸에서 깨지만 이제 더 이상 키는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 언제나 여름 송넵가의 은어 떼와 저수지에서 반짝 반짝 빛나던 윤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광주 북구에 국립주민자치연수원을

지만 주민은 여전히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회의실 등의 공간을 전전하며 ‘교육다는 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 주민자치를 진정 국가적 가치로 인정한다면 주민을 위한 국립 연수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필자는 그 해답으로 광주 북구에 ‘국립주민자치연수원(가칭)’ 설립을 제안한다. 광주 북구는 그 제안의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다. 이곳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례로 제정·시행한 자치의 상징지이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역시 북구에서 시작했다. 또 도시재생과 공동체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북구에 축적되어 있다.

국립주민자치연수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다. 이곳은 연간 10만명 이상이 집합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주민자치 전문기관이자 도시재생·문화자치·민주주의 교육을 아우르는 자치문화 복합 허브가 될 것이다. 총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교육시설, 연구센터, 문화전시공간, 체험장, 숙박시설까지 완비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꿈꾸는 대로 모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꿈꾸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주민자치 교육의 꿈을 구체적인 공간으로 제안해야 할 시점이다. 입지는 무등산의 경관을 품은 북구 내 ‘뉴 맛집’으로 조성하여 생태·문화·관광이 융합된 숙박형 교육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인근에는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관, 국립광주박물관

관 등이 밀집해 있어 문화교육과 관광이 결합된 자치교육 모델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이 연수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선다.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활동가, 청년 자치참여자, 주민제안자 등 누구나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실천형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해 곧 중심이 아닌 주민 주도형 자치교육 시스템을 구현하고 예술 기반 교육, 체험형 프로그램, 맞춤형 커리큘럼이 유기적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이 마을교육 전체로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북구의 ‘28번째 자치동’이라 부를 만큼 독립된 자치공간이자 생활거점으로 작동할 것이다.

나아가 이 연수원은 주민자치기록관과 자치정책 연구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주민자치의 역사와 사례를 체계화하는 국가적 플랫폼이자 글로벌 K-자치 모델 수출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이다. 전문미술관, 소공연장, 지역 로컬상품 홍보관, 주민운영 문화공간 등은 자치 그 자체를 문화상품화하며 ‘주민자치’라는 말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주민자치에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갖춰질 때 비로소 제도로 기능한다. 연수원 하나 없는 체계로는 ‘참여만 강조하는 자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주민자치도 배우고, 훈련받고, 축적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자치를 말할 자격이 있다면 주민을 위한 연수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을 광주 북구에서 열자.

社 說

당원의 힘 보여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정청래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는 권리당원의 힘을 보여준 선거였다. 정 대표는 박찬대 의원에 대의원 투표에서만 6% 가량 뒤졌을뿐 국민여론조사에서 6대 4로 승리했고 특히 권리당원 투표에선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앞서 당선됐다.

전국 권리당원의 33%를 차지하는 호남에선 정 대표가 66.49%를 득표했는데 과거 25~30%선에 머물던 권리당원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51.24%에 달할 정도로 당원들의 자발적인 투표를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선거 과정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4명 만이 정 대표를 지지하고 나머지 14명의 조직표가 상대 후보에게 동원됐지만 당원들의 표심을 남지지는 못했다.

정 대표의 당선은 내란·김건희·해병대 등 3대 특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있다.

정 대표도 당선 소감을 통해 내란 세력

을 철저히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면서 내란 사과 없는 국민의힘과는 약속하지 않겠다고 강경 의지를 밝혔다. 당장 여야 관계가 냉각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란 세력을 적절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뜻이 담긴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3대 특검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호남 당원들 입장에서조차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 호남 곳곳을 누비며 선거 승리에 일조한 정 대표가 당선 첫 일정으로 나주 수해현장을 찾아 호남인에 미안하고 고택마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호남 발전에 어떻게든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당원을 떠나 호남 유권자들은 정 대표의 당선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줄이 없더라도 유능한 사람을 민주당 후보로 선택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 경선이 보다 공정하고 역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차세대전력망 구축에 ‘에너지수도 전남’ 탄력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전남에 구축하기로 한 것은 지산지소(地產地消)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생태계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메카인 전남은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소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생태계가 이미 조성돼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며칠 전 발표한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전력망을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소규모 전력망을 만들어 송전을 최소화 하는 것인데 전남에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력 자급률이 200%를 넘었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도 5.19GW로 전국 최다인데 잠재량은 444.2GW에 달해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최적지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방침 아래 재생에너지 산업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얼마 전

에는 재생에너지로만 가동하는 RE100 산단 조성을 발표했는데 전남 서남권을 최적의 후보지로 거론했다.

어제는 563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첫 사업자 8곳을 선정했는데 7곳이 전남이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에너지 수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남도의 정책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23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고 서남권에 인구 50만명의 에너지 혁신성장 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드라이브가 전남에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정부의 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은 정부가 하겠지만 RE100 산단이나 데이터센터 등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전남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無 等 鼓

수장고(收藏庫)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소장품들을 보관하는 공간을 일컫는다. 금융기관의 ‘금고’와 같은 곳으로, 일반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된다. 도서관의 경우 보존서고라 불리며 유물과 작품의 보존 및 관리가 주 목적이다. 일정한 항온·항습이 중요한 것은 한번 파손되거나 유실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장고의 기능은 유물의 보존이나 유지 같은 단순한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해 간단한 복원 작업도 이뤄진다. 축적된 유무형 자료는 학문과 학술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얼마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아시아문화박물관 수장고를 볼 기회가 있었다. ACC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기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수장고를 공개한 행사였다. 인솔하는 직원을 따라 들어간 수장고는 지하 비밀요새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곳에서는 아시아 각국에서 수집하거나 기증 받은 다양한 자료들을 일정한 분류 체계에 따라 보존·관리하고 있었다.

ACC 수장고 견학을 하고 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공롭게 ‘광주시 개방형 광

역 수장 보존센터’ 건립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광주시는 인근 전남 사·군으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 수장고를 건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2회에 걸친 부지 공모가 유찰되면서 용역 자체가 중단된 것이다. ‘통합수장고’ 사업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역사민속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소장품들을 한 곳에 모으는 프로젝트다. 현재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수장고 포화율이 98%에 달하고 역사민속 박물관 97%, 시립미술관 95%에 육박할 만큼

지역 수장고 사정이 녹록지 않다. 올해 초 국립한글박물관 증축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다행히 전시물이 수장고에 보관 중이었던 데다 보물급 유물은 중앙박물관으로 즉시 이송해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 화재는 수장고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였다. 다양한 문화자료의 보고(寶庫)이자 응결체인 수장고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무 신청 배달 안함))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FAX 222-8005)	(FAX 222-0195)
회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